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게 되는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더욱 불태우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셨으며 민족과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어 민족의 아버지, 주체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는 자주의 기치높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시고 이 땅을 통일변혁하는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신 자주정치적의 거장이시고 주체의 태양이시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렁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깊게 절감하는 우리 겨레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민족번영의 든든한 토대를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돌이켜본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편패적인 붕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던 지난 세기 90년대 초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의 한 정객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였었다.

«...바로 그무렵은 동유럽 여러 나라가 붕괴되는 때였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평온을 유지하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당시 그 한사람의 의문이기에 국제사회가 초미의 수순끼리로 제기하고있던 문제였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현이 붕괴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존엄을 지켜내는데였는가.

그무렵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저

명한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적이 있었다.

석상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이 다 망하였지만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회주의길로 계속 갔듯이 나아갈수 있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처럼 풀고싶어하던 수수께끼에 명쾌한 답을 주시었다.

주체! 바로 이것이다.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 이시다.

그이께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였기에 공화국은 호랑이굴에 갇힌 동양을 뚫고 나가는 자의 개도를 따라 곧바로 걸어나갈수 있는 것이었다.

자주,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의 혁명신조이며 혁명실천이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총화하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주석께서

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 어떤 대국의 압력에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민족을 깔보고 우롱하려는 그 어떤 지배와 간섭행위에 대해서도 조그금도 타협하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한때 《국제분열》을 제창한 대국주의자들은 조선은 다른 나라에 망국을 대고 대신 그 나라의 기제설비를 들

어다 쓰라고 권유한 일이 있었다.

대국이 《아》 하면 《아》, 《배》 하면 《배》 하며 다른 나라들이 사대와 모방의 기류에 휘말려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시였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의 신념이고 배짱이었다. 그 어떤 외세의 전횡과 강권을 추호도 용서치 않았시는 견결한 자존심이였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주지 못할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의지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는것이였다.

민족자강의 신념과 의지를 가진 민족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자기 운명을 당당히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였던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조선을 방문한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을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시며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조선민족

의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없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

기자단의 방문소감이 그대로 세계에 전해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때로부터 한해 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켈리그 해리스의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담이 발표되였다.

«내가 1994년 8월 22일 카리엔에서 초청되어갔을 때... 카리엔의 내게 (김일성주석)를 정치지도자로 존경한다.»고 하였다.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직대통령 카터의 말은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바 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였다. ...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하면 김일성주석은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라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석은 언제나 민족문제를 모든 일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이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고 빛내어나가시는 것은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녕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물지 않는 역작 불변의 정치신조였다.

우리 겨레에게 대대손손 간직하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력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므로 오늘 또는 또 한번의 천출유일인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총핵을 이루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력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므로 오늘 또는 또 한번의 천출유일인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총핵을 이루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아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번째 조항도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의 원칙밑에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력을 기울이시였다.

이 자주의 원칙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승화되어 삼천리의 행성의 각지로 메아리쳐갔다. 하기에 겨레는 오늘도 자주통일을 소리높이 웨친다.

진정 주체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려정에서

조국통일을 자신의 당면과업으로 여기시고

주체55(1966)년 여름 어느날 밤이던 나라의 분별로 우리 겨레가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심려하시며 잠 못이루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2(199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제미동포들을 만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며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어 그이께서는 화기에대한 동포들의 부인기속에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

은 일군들에게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하시며 남조선인민들 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열의 력사만이 길어가고있다고, 조국해방이 지난날 나의 당면과업이라면 조국통일은 오늘날 나의 당면과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

기치야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이 그이께서는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존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을 한별이라고 고쳐 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 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一(일성), 즉 한별이라는 뜻이였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쳐치고 발기한것은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였다. ...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찬연히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그이를 민족의 태양, 조선혁명을 위한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올린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지어드린 이름이였다.

당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이며 열렬시인인 김혁은 수령님을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추는 새별로 높이 칭송하였다.

안창호, 손정도, 오동진을 비롯한 민족주의 자들도 김성주학생이 새세대 지도자로 나타나것은 우리 민족의 행운이며 동천의 새별과 같은 존재다. 그 뜻에서 새별이라는 아호로 칭송하자고 일치하게 의사를 모았다. 그후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아버이수령님께 《김일성》이라는 태양의 존함을 지어 올리였다.

태양의 구성은 빛과 열, 인력이다. 태고적부터 태양의 따스함과 은혜로움을 알게 되면서 인류는 자기들이 숭상하는것에 태양의 이름을 달고 신성시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서 인류가 숭상한 인간태양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성이나 위인도 태양의 이름으로 호칭된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추는 새별로 높이 칭송하였다.

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김일성대장 만민의 태양이시다》, 《자자손손 받들자 절세의 영웅 김일성대장》 등 구호문헌들은 그이를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겨레의 경렬한 지향과 의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우리 겨레만이 아닌 국제사회도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받들어모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를 밝히는 영원한 태양》, 《인간에게 더는 없을 위대한 인간태양》으로 칭송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김일성학원, 김일성도서관, 김일성거리 등과 같이 그의 존함을 학교와 건물, 거리들에 모시였다. 전 미국대통령 카터도 김일성주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

겨레의 통일속망을 풀어주시려고 (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모든 통일에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외세와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미군의 남조선장기주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엔 제3차총회에서 새로운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해내려고 획책하고있었다. 한편으로는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인민들의 조국통일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북과 남의 통일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자주적평화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38(1949)년 5월 16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과 6월 11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을 총결하여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무렵 남조선로동당, 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노동당, 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 등 남조선의 8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것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 제의하여왔다.

이리하여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남조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제의에 대한 회답서를 채택하고 5월 25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호소하였다.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과 관련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는 한편 결성대회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였다.

주체38(1949)년 6월 25일부 28일까지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참석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남조선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들어가있지 않던 24개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북조선의 71개 정당, 사회단체로 704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이제 대치하여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주동적조치들을 현이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로 수립된 조국전선은 주체39(1950)년 6월 7일 확대회의를 열고 북과 남의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체39(1950)년 6월 16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으로서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대책을 취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였다.

6월 19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요청을 접수하고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한 호소문과 관련한 다음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이 제안한 이 새로운 방안은 미국과 리승만 《정권》의 전횡도발책동기 구도에 이르러 평화통일실현의 가능성이 사실상 과반되고있던 당시의 사정하에 어떻게 하나 조국과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끝까지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려는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인내성있는 진지한 노력의 뚜렷한 표시였다.

본사기자 홍범식